

프로야구 홈런왕 경쟁 가열

최정의 2년 천하 위협할 강력한 경쟁자 박병호 등장

최근 2년 프로야구 홈런왕은 SK 와이번스의 간판타자 최정(30)의 몫이었다

지난해 홈런 40개를 쏘아올려 에릭 테임즈(당시 NC 다이노스)와 함께 공동 1위에 오른 최정은 올해 46개를 때려내 2년 연속 홈런왕에 올랐다

최정은 올해 역대 3루수 최다 홈런, SK 구단 역대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종이리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없었던 50홈런까지 노려볼 수 있었다

최정의 2년 천하를 위협할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친정팀 넥센 히어로즈로 복귀하는 박병호(31)다

박병호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홈런왕에 등극했다. 4년 연속 홈런왕은 사상 최하다

2012년 31개, 2013년 37개의 홈런으로 홈런왕에 오른 박병호는 2014년과 2015년 각 52, 53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2015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MLB) 미네소타 트윈스로 떠난 박병호는 올 시즌 한 번도 빅리그의 부름을 받지 못했고 결국 국내 복귀를 택했다

기록상으로는 2년 연속 50개 이상의 홈런을 친 박병호가 단연 우세다

문제는 변수다

박병호가 미국으로 나간 전 넥센의 홈구장은 목동구장이었다

현재 넥센이 홈구장으로 쓰는 고척 스카이돔은 좌우 99m, 중앙 122m로 목동구장보다 크다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 아니다



SK 와이번스의 간판타자 최정(사진왼쪽)·친정팀 넥센으로 복귀하는 박병호

SK의 홈구장인 인천 SK행복드림구장(좌우 95·중앙 120m)은 KBO리그에서 가장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손꼽힌다. 박병호가 없는 2년 간 최정은 중장거리형 타자에서 홈런 타자로 변신했다

시상식에 다니고 바쁜 겨울을 보낸 최정은 박병호의 컴백 발표 이후 박병호 관련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최정은 "박병호의 복귀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해왔다. "박병호는 한국 야구에서 높은 위치에 오른 타자고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했다.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나는 비교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을 뿐"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자극이 되느냐는 질문에도 "박병호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줄 알았다. 시기가 맞지 않으면서 잘 풀리지 않았다"며 "야구 팬의 입장에서 박병호가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답했다

최정, 박병호를 비롯해 2018년 홈런왕은 토종 거포들의 각축전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2011년 홈런왕 최형우(34·KIA 타이거즈)와 국내 복귀 첫해에 34개의 홈런을 날리며 견제를 과시한 이대호(35·롯데 자이언츠), 신흥 거포 김재환(29·두산 베어스)·한동민(28·SK) 등이 홈런왕 경쟁을 펼칠 후보로 꼽힌다

/뉴시스

류현진, 내년 시즌 선발 가능성 ↑

마에다 불펜 갈듯

류현진(30)이 내년 시즌 LA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류현진과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한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29)가 불펜 투수로 뛴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었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18일(한국시간) "다저스가 전날 매트 캠프를 영입하는 대형 트레이드로 브라이스 하퍼 영입에 더 좋은 위치를 점했다"고 전하면서 다저스의 내년 시즌과 이후를 전망했다

다저스는 17일 내야수 애드리안 곤잘레스(35)와 찰리 커버슨(28), 투수 브랜던 매카시(34)와 스콧 카즈미어(33), 현금 450만 달러(약 49억원)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보내고 매트 캠프(33)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내년 시즌 연봉이 2150만 달러인 곤잘레스와 1200만 달러인 매카시, 1500만 달러인 카즈미어를 정리했다

현지 언론은 선수단 연봉 총액을 줄이기 위해 트레이드를 한 다저스가 캠프를 트레이드하거나 방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후스포츠는 선수단 연봉 총액 규모를 줄인 다저스가 2018시즌 이후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하퍼 영입 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내년 시즌 다저스 로스터에 대한 예상도 내놨다

선발 자원인 매카시와 카즈미어가 빠진 뒤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에 대한 전망도 있다

"선발 자원이 넘쳐나는 다저스는 불펜 자원을 채워야 한다. 다저스는 내년 시즌 클레이튼 커쇼와 리치 힐, 알렉스 우드, 류현진 선발 투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발 진입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로는 워커 블러와 홀리오 우리아스 등을 꼽았다

이런 전망의 배경에는 마에다의 계약 조건이 있다

기본 연봉이 300만 달러인 마에다는 개막 로스터 진입과 소화하는 이닝 수, 선발 등판 경기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야후스포츠는 "하퍼 등 FA 영입을 위해 선수단 연봉 총액 줄이기에 나선 구단이 마에다에게 줄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해 불펜 투수로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에다는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불펜 투수로 좋은 활약을 선보인 바 있다. 류현진의 선발 로테이션 합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뉴시스

이상수·정영식·전지희 '탁구스타 총출동' 왕중왕 가린다



정영식과 이상수

가대포급 선수가 맞대결하는 방식이 가능해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 탁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방식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한탁구협회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는 탁구 라켓과 경기 용품 등 경품을 제공한다. 결승전이 열리는 27일에는 한국 탁구의 레전드 유남규, 현정화 감독의 이벤트 매치가 마련됐다

한국 탁구의 위상을 드높인 올림픽 메달리스트 유승민(IOC 선수위원), 주세혁, 오상근 당에서 박미영의 은퇴식도 이날 개최된다

탁구 국가대표 후원사인 신한금융그룹은 이번 대회 타이틀 스폰서로 나섰다. 신한금융그룹은 '아시아의 리딩 금융그룹을 지향하고 있는 신한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탁구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아 세계 속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과 27일 주요경기는 MBC와 MBC스포츠채널이 생방송한다

/뉴시스

신태용 감독, 유럽과 보러 나간다... 국대 후보들 현장체크

한일전 대응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돌려놓은 신태용 감독이 유럽과 점검에 나선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

첫 목적지는 권창훈(디종)과 석현준(트루아)의 프랑스다

올리 슈틸리케 전 감독 시절부터 꾸준히 중용된 권창훈이 월드컵 엔트리 한 자리를 사실상 예약했다고 보면, 관심은 석현준에게로 쏠린다

석현준은 지난해 10월 2018 러시아 월드컵 카타르와의 최종예선 3차전 이후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석현준은 최전방 공격수로 선

발 출장했지만 득점 없이 후반 시작과 함께 김신욱(전북)과 교체됐다

물론 그때와 현재 석현준은 다르다. 적응에 애를 먹으며 '저나쁜'으로 떠돌던 석현준은 프랑스 리그와 트루아로 이적 후 기량을 만개했다. 지난 10일에는 AS모나코를 상대로 2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신 감독과 석현준은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연을 맺었다

신 감독은 와일드카드 한 장을 석현준에게 할애해 최전방을 맡겼다

하지만 결과는 썩 좋지 못했다

아직 확실한 최전방 자원을 찾지 못한 신 감독은 달라진 석현준의 플레이를 눈으로 확인하며 대표팀 밀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일정을 마치면 잉글랜드로 넘어간다. 잉글랜드에는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이 있다

실질적인 에이스 손흥민과 주장 기성용의 러시아행은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변수는 이청용이다

다제다능한 이청용은 대표팀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

단 컨디션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야기다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출전 기회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현 이청용이라면 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 감독은 이청용을 만나 팀내 입지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